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②

歲在壬寅正月 새해임인정월 赴上都普濟寺談法會 上도보제사담산법회 一日與同學十餘人 約曰罷會後 日일여동학십여인 약할파회후 當捨名利 隨通山林 結爲同社 當捨名利 隨通山林 結爲同社 當捨名利 隨通山林 結爲同社

승법문 견문훈습 기비속연 而不自廢 返生絶分 此佛轉經 萬行施爲 是沙門 業불전경 만행시위 시사문 住持常法 豈有妨碍 然不礙根本 住持常法 豈有妨碍 然不礙根本 住持常法 豈有妨碍 然不礙根本

나는 임인년 정월에 서울 보제사의 담선법회에 나아갔다. 어느 날 등학 십여인과 함께 약속하기를 "이 법회가 끝나면 응당 명리를 버리고 산림에 숨어서 함께 한마음이 되어 향

이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시간은 비록 변천한다지만 사람의 심성(心性)은 변하지 않는다. 법도(法道)에 흥취가 있다고 보는 것은 삼승

소임따라 인연따라 성품기르며

걸림없이 살면 실로 통쾌한 일

삼 선정을 익히고 지혜 닦기를 힘쓰며, 예불하고, 경 읽으며, 율력하는데 이르기까지 각자 소임에 따라 경영하여 인연 따라 성품을 기르며 평생을 걸림없이 살면서 멀리로는 달사와 진인의 높은 행을 따른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권학(三乘權學: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 등 삼승인을 위하여 방편으로 가르친 것)이며, 지혜 있는 사람은 통쾌하지 않다. 그대들과 나는 가장 훌륭한 교법(教法)을 만나서 보고, 듣고, 익히니 어찌 과거로부터 쌓아온 인연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스스로 경사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런 인연을 끊어버리고 권학인(權學人:삼승의 근거를 가진 사람)으로 만족한다면 이는 선조의 뜻을 저버리고 끝내는 부처의 종자마저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 열불하고 독경하고 만행(萬行)을 닦는 것은 사문(沙門)으로서 항상 행하는 법이니 어찌 서로 방해가 되겠는가. 그러나 근본을 공부하지 않고 형상에 집착하여 밖에서 구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화엄론>에도 보면 '일승교문(一乘教門:일체 중생이 성불한다는 입장에서 그 구제하는 교법이 하나뿐이고 또한 절대 진실한 법의 문)은 근본지(根本智:일체 현상은 본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을 아는 지혜)로써 성취하는 것이므로 일체지승(一切智乘:모든 존재에 관해 포괄적으로 아는 대승적인 지혜를 이룸)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諸公聯誼曰 時當末法 正道沈隱 諸公聯誼曰 時當末法 正道沈隱 諸公聯誼曰 時當末法 正道沈隱 諸公聯誼曰 時當末法 正道沈隱 諸公聯誼曰 時當末法 正道沈隱 諸公聯誼曰 時當末法 正道沈隱

김원각 각(시인·역경위원)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이 이런 뜻으로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이 이런 뜻으로 말했다.

"지금은 말법(末法) 시대라 정도가 숨었는데 어찌 선정과 지혜 닦기에 힘쓰겠는가. 차라리 아이타불을 부지런히 열불하여 극락정토의 업을 닦는 것만 못하리라."

"지금은 말법(末法) 시대라 정도가 숨었는데 어찌 선정과 지혜 닦기에 힘쓰겠는가. 차라리 아이타불을 부지런히 열불하여 극락정토의 업을 닦는 것만 못하리라."

余曰時雖遷變 心性不移 余曰時雖遷變 心性不移 余曰時雖遷變 心性不移 余曰時雖遷變 心性不移 余曰時雖遷變 心性不移 余曰時雖遷變 心性不移 余曰時雖遷變 心性不移

김원각 각(시인·역경위원)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이 이런 뜻으로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이 이런 뜻으로 말했다.

100가지 병(病)을 고치는 의초(醫草) 인진숙

신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경복 영천 보연산 자연산 제막

■ 신체의 뿌리 「위기 튼튼해야 장이 좋아진다」

■ 신체의 뿌리 「위기 튼튼해야 장이 좋아진다」

■ 비만/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 비만/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해진다」

■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해진다」

지장선원/한국건강가족동호회 053)982-6778 011)813-3679

지장선원

053)982-6778 011)813-3679

053)982-6778 011)813-3679

053)982-6778 011)813-3679

053)982-6778 011)813-3679

백제 불교 최초 가람이라 전하는 모악산 불갑사(佛甲寺)에서는 가을 산사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불갑사의 명물 빼알간 상사화가 한껏 그 아름다운 지대를 드러내며 파아란 하늘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2일, 불갑사 조실 지종(知宗) 스님께 법문을 청했다. 마침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열화실에 서 나오자 산토끼 한마리가 반갑다는 듯 프르르 산에서 내려

큰 스님과의 대화

지종스님

영광 불갑사 조실

왔다. 마치 오랜 도반처럼 산토끼의 출현을 반갑게 맞으며 먹이를 찾는 산토끼를 따라 이리 저리 움직이시는 스님에게서 마음에게도 차별없이 베푸는 무연지비심(無緣慈悲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종스님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은 아무리 파내도 마르지 않습니다. 불자들은 모두 시냇물같은 무류복(無漏福)을 짓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라고 강조하셨다.

“아집 버리면 화해 저절로”



- 1922년 4월 전남 장성 생
1938년 백암사에서 법안스님을 은사로 득도
백암사 주지 역임
광주 정광학원 이사장 역임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영광군 불갑사 주석

근세의 대 선지식 만암스님의 회상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세가 가장 숭앙받는 고승들의 한분이신 만암스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요. 만암스님은 열반에 드실때까지도 대중과 함께 공양하는 등 대중생활을 철저히 하신 것으로 유명인데 특히 만암스님께서 대중생활에서 경계하신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만암스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면 벌써 견성성불했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도 하나도 이행 못하니 이리구 살지요. 만암스님은 워낙 언행이 일치하고 늘 겸손했으며 공심으로 일을 처리하니 누구나 다 추앙을 했어요.

만암스님은 80 넘어서도 대중과 같이 발우공양했어요. 찬도 다 똑같이 먹었어요. 누가 특별하게 찬대접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입이 하나가 아니다. 입은 다 똑같다. 노소를 막론하고 입은 다 똑같이 같이 먹어야지. 나 혼자만 좋은 것 먹으면 되느냐"고 잘잘하게 거절하셨지요. 또 만암스님은 당시 개인에게 해 끼치는 일은 그냥 웃어넘기지만 남에게 해 끼치는 일은 사자후로 경책하셨어요. 그분 만큼 공과 사가 분명했던 스님도 없다고 봅니다.

또 거저된 행동이나 신심을 위장하거나 거짓말은 금방 아셨어요. 특히 거짓되게 위장하는 일에는 단장에 불호령을 내리셨지요.

이러한 일화가 있어요. 만암스님이 백암사를 운영할 때에 절재산을 모두 모아보니 3백석밖에 없어요. 명색이 본사인데 걱정이지. 그래서 4백석을 더 만들어놓아 7백석을 만들었어요. 개인 암자것을 한데 모아 한달에 서말씩 양식을 내렸어요. 다른 본사스님 개인 재산만도 못한 것을 가지고 큰 절을 잘 운영해 나갔는데 극도로 절약했음은 물론 철저히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데만 썼기에 가능했지요. 가정도 그렇고 중단도 그렇고 국가도 그러한 마음으로 운영을 해야 내실을 기할 수 있어요.

내 요즘 젊은 스님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어. 요즘 젊은 스님들 돈 많다고 자가용 비싼 것 타고 돌아다니 보기싫거든. 잔소리를 좀 하지요. 절정에 돈이 없어야 종자를 끝낼 거예요. 불교신자라고 허울좋은 이름만 붙이지 말고 진실로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첫째, 공심(公心)을 가지고 항상 생활해야 해요. 둘째, 바른 신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심을 가지려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팔경도에 따라 살면 되지요. 셋째, 삼독을 버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는 자기의 자성을 밝히도록 부지런히 닦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스스로 회광반조(迴光返照)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면 불자로서 남의 손가락질을 면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남의 사표는 커녕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해요.

수월해진 것이 사실이지요. 스님들께서도 한없이 편하려고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이 승려생활이고 또 엄격하게 고행하려면 한이 없는 것이 승려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스님은 행자생활만 5년 가까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좌교육도 엄격하게 시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79살인데 아무리 아파도 새벽 2시 20분이면 일어나 예불에 동참하고, 가능한 평상시에는 안 누울려고 애씁니다.

옛날에는 행자생활이 철저히 종이 될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는 기간이었어

요. 행자때 하는 것 보고 나서 머리깎아주었거든요.

지금은 중노릇하기 천하여 닦고 봐요. 행자라도 법당에 가서 예불도 하게 하고 경도 보게 하지만 그때는 어렵도 없었지요.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사랑될일이 도 보고 행동도 보고 해서 신심도 없고 나태한 사람은 절대 머리 안 깎아주었어요.

—왜 경도 못보게 하고 공부를 안 시켰습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될 마음 바탕이 어떤가를 보려고 한 것이지요. 불가에서는 행자때 신심을 바탕으로 평생 중노릇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행자때 나중의 수행생활을 잘할 수 있는 마음바탕을 충분히 다지라는 것이지요. 뿌리같은 나무는 바탕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종이 되었다가도 환속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행자때 기본을 철저히 다져놓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생 수행할 인쇄심과 하심을 행자때 기르는 것이지요. 수년동안 그렇게 익힌 다음에 경전말씀이 들어가고 참선공부를 해야지 아직 마음공부도 다하지 못했는데 심불리 무엇부터 가르쳐놓으면 시간방자져서 못 써. 요새 스님들 하는 처세가 왜들 저렇게 거칠고 제멋대로인가. 행자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최근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친구들의 놀림감이 되는 것을 보고 아들을 목졸라죽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하는데 세상이 더욱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요?

▲속담에 뱀새가 황새 따라갈랴다 가람이 찢어져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가 요새는 전부 급하고 '빨리빨리'예요. 보다 편리하게 보다 편리하게 하다보니까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이상으로 분수넘치게 호화롭게 살려 하고 넘쳐나지 못한 사람은 내 능력이 없으니가 내 능력대로 살지 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만에서 세상을 원망해요.

빅-뉴스

피로? 나에게 는 없다!

■ LIHIS 건강양말

- 건피부(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숲 양말

- 당뇨병에 더 이상 당이 안 오름
· 원적외선 차단

건강숲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주) 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5
전남북 특판점 062)956-7676~7
동대구 특판점 053)982-4976

神 秘 的 霹 靂 木

벽 조 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6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

87년 八公山갯바위 토굴에서 매일 삼천배의 100일기도 수행도중 霹靂으로 지리산 인근 옥천마을에서 6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접지 받아 갯바위 인근 절에서 십수년을 신도 대상으로 벽조목의 신비한 영험을 체험하였으며 특히 가공하지 않은 가지를 가져간 분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몽합장
*권선(勸善)이나 불사에 필요한 분이 계시면 가공하지 않은 가지를 양도 할 수 있음

스님께 염주를 보시(布施)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業報를 받는다 20만번 돌리면 특생(轉生)하고 1백만번이면 열반에 든다고 함

*연속극 공예 108영주극기

*간절한 한가지 소원이 있으신 분은 성명 생년월일 한 가지 소원을 적어 보내주시면 벽조목으로 부도(符道)의 천부(天符)비법으로 소원성취를 이루어 드립니다. (상담시간 10~오후 1시까지)

상담전화
053)982-4976 / 011-813-3679
지 장 선 원